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77호 2019년 2월 13일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Tel.+82-51-797-4665 Fax.+82-51-797-4659 △총괄:박성준 러시아연구센터장 △감수:길광수 명예연구위원 △편집:김엄지 연구원

주요내용

통계로 보는 북방

- 모스크바 지역, 물류업 관련 일자리 개수 및 평균 임금 1위

주요 동향

- 동부권역
 - 추코트카 선도개발구역에 새로운 온실단지 건설
 - 러·북 경협 구체화 ... 북한 대표단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 지난해 러시아 항만 물동량, 전년 대비 3.8% 증가
- 중부권역
 - 투르크메니스탄, 국가발전 위한 단계적 개혁 착수
 - 카자흐스탄, 다양한 수출 품목 확대 정책 추진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미국에 군사적 목적으로 카스피해 항만 시설 제공 반박 ... 철도 연결을 통한 물동량 확대 기대 언급

주요통계

- 2017/2018년 러시아 연방관구별 15~72세의 인력수 변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서부권역 :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 중부권역 : 중앙아시아, 몽골 / 동부권역 :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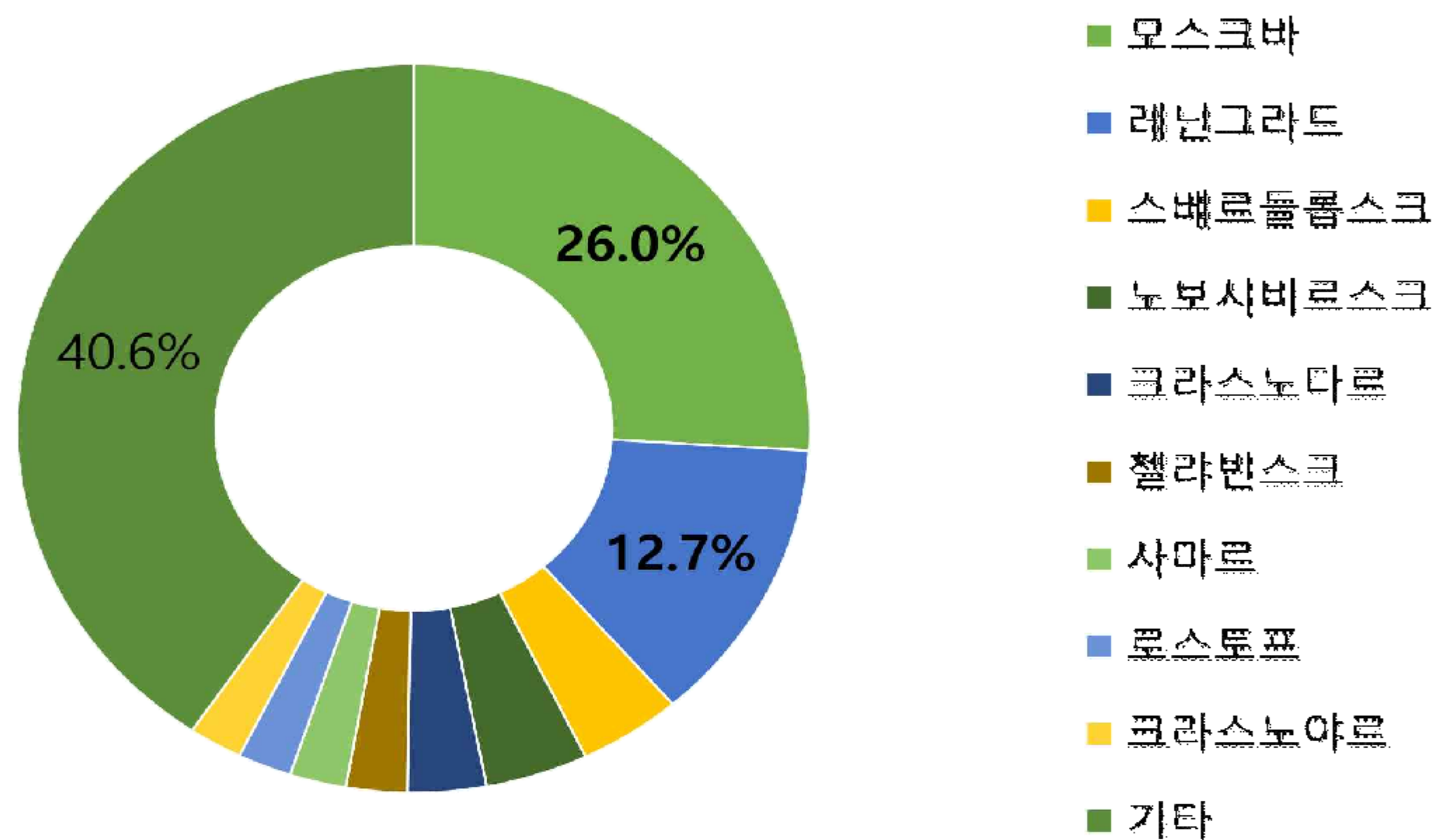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북방

■ 모스크바 지역, 물류업 관련 일자리 개수 및 평균 임금 1위

러시아 물류업 일자리 개수 지역별 비교

(단위: %)

자료: <https://russia.trud.com/salary/692/3716.html#chart-locationDistribution>(검색일: 2018년 2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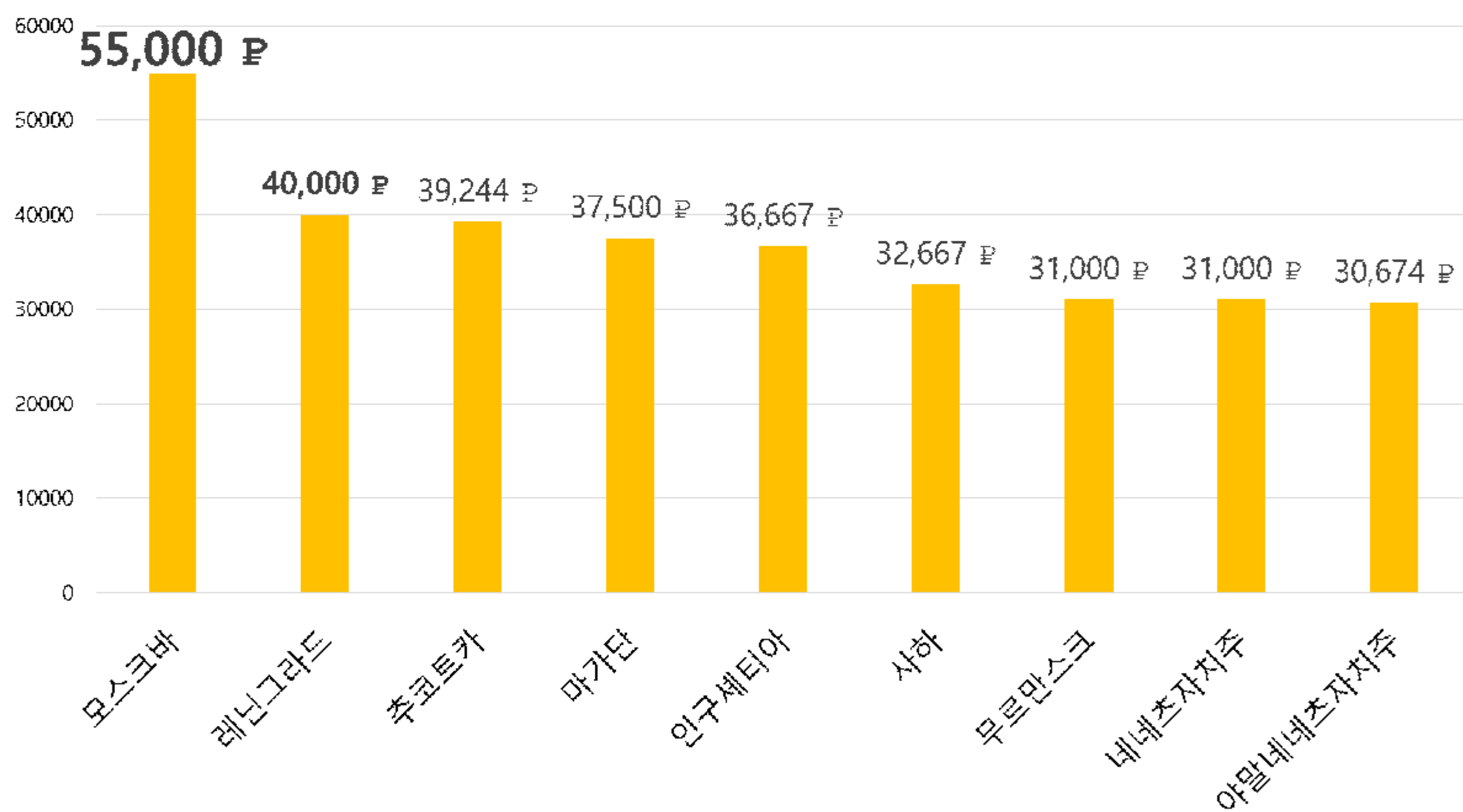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모스크바가 총 물류업 관련 일자리 중 26.0%(25,001개)를 차지함
 - 그 다음으로 레닌그라드(상트 페테르부르크)가 12.7%(12,214개)로 2위를 차지함
 - 물류업 관련 일자리가 있는 지역은 주로 서부권역(모스크바, 첼랴빈스크,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및 시베리아지역(노보시비르스크)임
 - 추후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제도로 혜택을 받은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목표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극동지역에서의 물류업 관련 일자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기준 물류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 수준 또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상트 페테르부르크)가 각각 1, 2위를 차지함



- 다만 추코트카, 마가단, 사하 등 극동지역 및 야말 네네츠 자치주, 네네츠 자치주 등 북극지역(서부)이 지역별 임금수준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음
- 야말 네네츠 자치주 및 네네츠 자치주의 경우 야말 프로젝트를 통해 LNG 주요 수출 지역으로 자리매김한 결과, 주민들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음
- 추코트카, 마가단의 경우 러시아 극동 및 북부지역에 위치해 일부 토지개량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작물 재배가 불가하며, 주로 금 생산을 중심으로 한 광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
- 따라서 마가단은 유전개발프로젝트인 마가단-1, 마가단-2가 가동될 경우 자원 관련은 물론, 물류업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 물류업 평균 임금 지역별 비교

(단위: 루블)

자료: <https://russia.trud.com/salary/692/3716.html#chart-locationDistribution>(검색일: 2018년 2월 10일)

■ 참고자료 : <https://russia.trud.com/salary/692/3716.html#chart-locationDistribution> (검색일: 2019년 2월 10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동부권역 주요 동향

■ 추코트카 선도개발구역에 새로운 온실단지 건설

- 추코트카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 대표인 파벨 마카트로프는 북극권에서 채소와 화훼를 재배하는 'Living Green'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북극권에 위치한 아나드르에 새로운 온실단지를 건설할 예정임
 - 파벨 마카트로프 대표는 2017년에 극동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온실단지를 건설함
 - 본 단지에서 재배된 채소 등은 아나드르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및 학교, 소매점에 공급됨

추코트카 선도개발구역 온실단지



자료: <https://minvr.ru/press-center/news/21008/>(검색일: 2019년 2월 11일)

-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배 가능한 온실 작물을 늘려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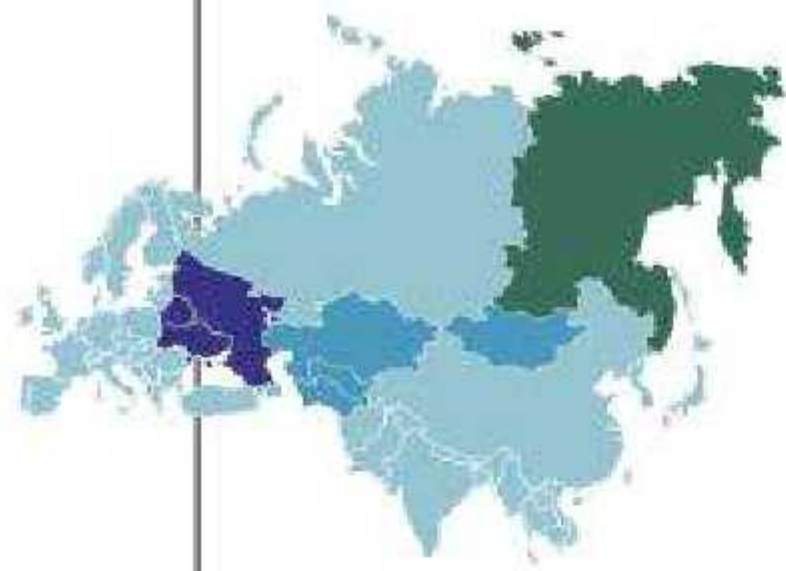
- 본 제품은 수입품보다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가지며 농작물 외에도 도시의 조경을 위한 화훼생산도 늘릴 계획임

- 새로 건설될 온실단지는 올 여름 추코트카 항로가 열릴 때 착공해 연말에는 지역 시민들에게 새로운 유기농 채소를 제공하게 됨
- 추코트카 선도개발구역의 경우 2019년 1월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개발구역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총 39개의 업체가 투자계획서를 제출함
 - 총 투자금액은 약 108억루블이며 약 1,27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봄
 - 이 중 이미 투자를 시작한 기업은 18개 업체로 투자금액은 약 34억루블, 약 375명의 일자리가 창출됨

■ 참고자료 : <https://minvr.ru/press-center/news/21008/> (검색일: 2019년 2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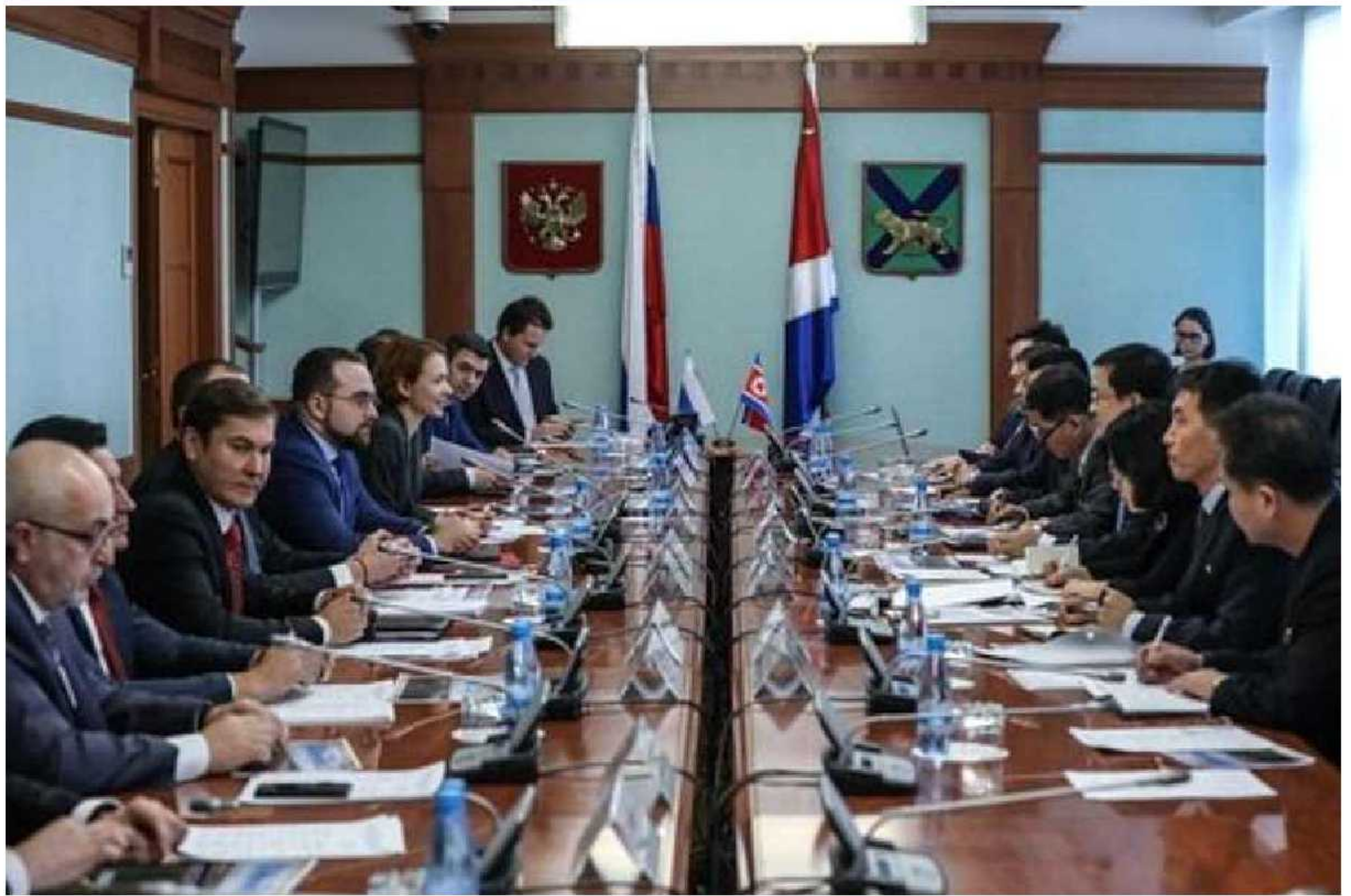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 러·북 경협 구체화 ... 북한 대표단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연해주정부 관계자와 회담하는 북한 실무 대표단



-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최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북·러 간 무역 및 경제관련 실무협상을 진행함
 -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북한 대표단에는 대외경제성 관리자뿐 아니라 외무성, 국토환경성 등 관련 단체들의 대표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북한 대표단은 지난달 31일 러시아측의 극동개발부, 연해주정부 관계자 및 지역경제단체 대표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양국 간 현안문제들을 논의함
 - 실무회의에서는 ▲두만강 자동차교량 건설 ▲러·북 전자상거래 무역관 구축 ▲북한 노동자 문제 ▲제9차 러·북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개최 준비 등이 협의됨



- 특히 두만강 자동차교량 건설 의제와 관련해 북측 대표단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러시아측 보다 주도적으로 협의에 임했다고 함
 - 두만강 자동차교량 건설 관련 러·북 실무팀은 이미 작년 3월에 구성돼 현재 러시아측은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임
 - 교량건설 사업추진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에 중요한 상징이 될 수 있고, 최근 단둥-신의주간 신압록대교가 완공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북한 내부 또한 양국을 잇는 교량건설로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프로젝트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함
 - 양국 간 교역량은 대북제재로 인해 2천만달러 규모로 절반 이상이나 대폭 감소했음
- 러·북 전자상거래무역관 개설 또한 실무회담에서 논의됐는데, 양국 간 처음으로 구축되는 온라인상거래 플랫폼(www.koryo2b.ru)오픈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됨
 - 양국은 지난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전자상거래무역관 개설 논의를 처음 시작하고, 현재 구축 완료단계에 있는 것임
 - 앞으로 웹사이트가 공식 오픈되면 양국이 처음으로 온라인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례가 되며, 러시아 내 개인과 법인들이 대북제재 금지 대상이 아닌 북한산 제품들의 구매가 가능해지는 것임
 -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결제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관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예외없이 여전히 유엔대북제재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
- 이번 회담에서는 극동지역에서의 북한 노동자 문제 또한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음
 - 최근 수년간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 수는 4배나 감소해 현재 1만명이 채 안되며, 이들은 2019년 말까지 모두 러시아 영토를 무조건 떠나야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번 북한과의 회담과 관련해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결정안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기본입장에 의거해 논의안건들을 준비했다고 주북 러시아대사측은 논평함

■ 참고자료 : <https://ria.ru/20190128/1549997867.html>(검색일: 2018년 2월 1일)
http://zrpress.ru/society/vladivostok_05.02.2019_92987_torgovomu-domu-kndr-vo-vladivostoke-byt.htm(검색일: 2018년 2월 6일)

전명수(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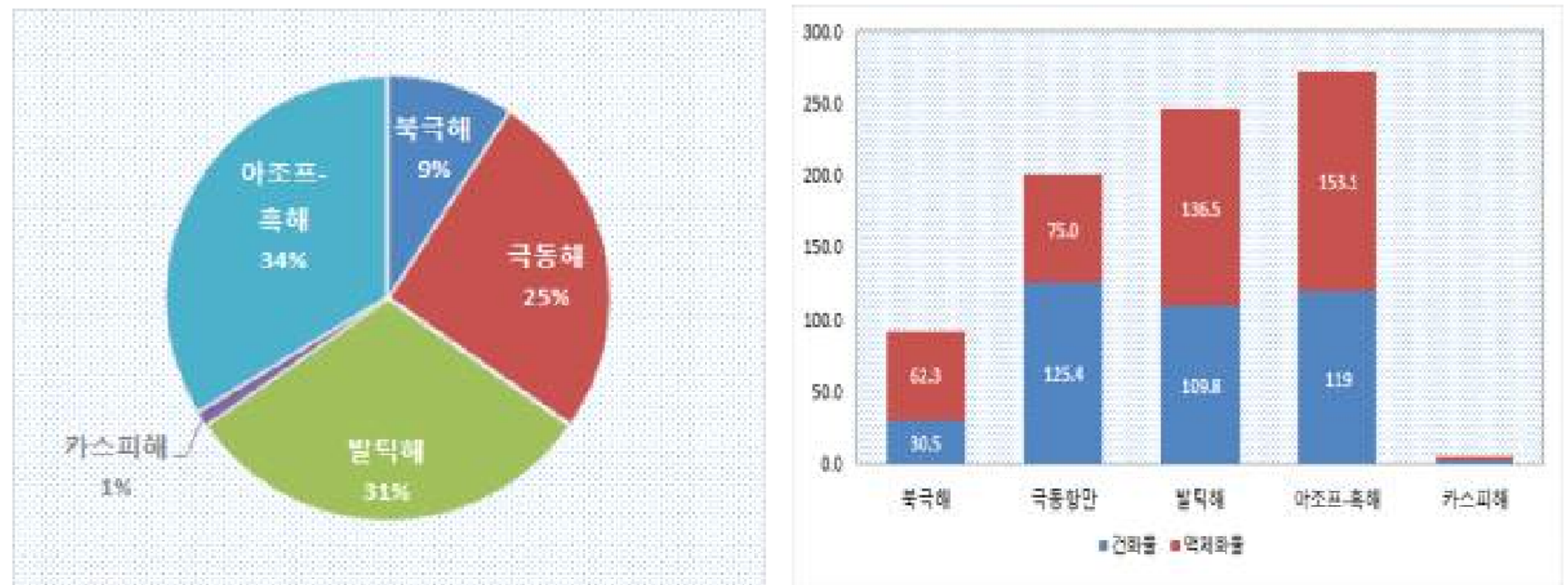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 지난해 러시아 항만 물동량, 전년 대비 3.8% 증가

2018년 러시아 항만 물동량 분포

(단위: %, 백만톤)



자료: <http://www.morflot.ru/news/lenta/n3949.html>(검색일: 2019년 2월 7일)

- 러시아 해양 내륙운송청(Federal agency for Maritime and River Transport of Russia)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러시아 항만 물동량은 8억 톤을 초과해 전년 대비 3.8% 증가했음
- 전통적으로 아조프-흑해와 발틱해 항만에서 대부분의 화물이 처리되었으나, 북극해와 카스피해 항만의 물동량이 약 25%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2018년 러시아 항만 물동량은 8억 1,646만톤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함
 - 건화물 3억 8,734만 톤, 액체화물 4억 2,912만톤으로 각각 3.8, 3.9% 증가함

2018년 러시아 항만 건화물 물동량

(단위: 백만톤)

화물	석탄	곡물	컨테이너	철금속	광물질 비료	산림자원
화물량 (전년대비)	161.4 (4.4%↑)	55.7 (16.3%↑)	53.6 (11.1%↑)	30.4 (7.6%↑)	17.8 (0.1%↑)	5.5 (7.3%↑)

2018년 러시아 항만 액체화물 물동량

(단위: 백만톤)

화물	석유	석유제품	액화가스
화물량 (전년대비)	255.4 (1.2%↑)	145.1 (2.4%↑)	23.2 (1.6배↑)



2018년 러시아 항만 수출입별 물동량

(단위: 백만톤)

형태	수출	수입	환적	연안 무역
화물량 (전년대비)	623.8 (3%↑)	37.3 (3.2%↑)	64 (9.8%↑)	91.4 (6.2%↑)

- 북극해 항만의 물동량은 9,273만톤으로 26.4% 증가함
 - 건화물 3,045만 톤(4.3% 증가), 액체화물 6,228만톤(41% 증가)

2018년 북극해 주요 항만물동량

(단위: 백만톤)

주요 항만	무르만스크	사베타	아르한겔스크
화물량 (전년대비)	60.7 (18.1%↑)	17.4 (2.3배↑)	2.8 (15.5%↑)

- 발틱해 항만의 물동량은 2억 4,632만톤으로 0.5% 감소함
 - 건화물 1억 978만 톤(4.5% 증가), 액체화물 1억 3,654만톤(4.1% 감소)

2018년 발트해 주요 항만물동량

(단위: 백만톤)

주요 항만	우스치-루가	프리모르스크	볼쇼이 포트 상트-페테르부르크	비소츠크	칼레닌그라드
화물량 (전년대비)	98.7 (4.4%↓)	53.5 (-7.1%↓)	59.3 (10.6%↑)	18.8 (7.1%↑)	14.1 (1.5%↑)

- 아조프-흑해 항만의 물동량은 2억 7,216만톤으로 0.9% 증가함
 - 건화물 1억 1,904만 톤(0.4% 증가), 액체화물 1억 5,312만톤(1.3% 증가)



2018년 아조프-흑해 주요 항만물동량

(단위: 백만톤)

주요 항만	노보로시스크	로스토프 온 돈	투아프스	카프카스	타만
화물량 (전년대비)	154.9 (5%↑)	16.7 (11.5%↑)	25.6 (3.7%↓)	30.1 (14.9%↓)	14.1 (6%↓)

- 카스피해 항만의 물동량은 480만 톤으로 21.6% 증가함
 - 건화물 264만 톤(6.9% 감소), 액체화물 216만 톤 (1.9배 증가)

2018년 카스피해 주요항만 화물량

(단위: 백만톤)

주요 항만	마하츠크	아스트라한
화물량 (전년대비)	2.5 (1.8배↑)	1.9 (16.7%↓)

- 극동 항만의 물동량은 2억 46만 톤으로 4.5% 증가함
 - 건화물 1억 2,544만 톤(6.7% 증가), 액체화물 7,503만 톤(1% 증가)

2018년 극동 주요항만 화물량

(단위: 백만톤)

주요 항만	바니노	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톡	데카스트리	프리고로드	포시에트	보스토치니
화물량 (전년대비)	29.5 (0.9%↑)	24.3 (0.1%↑)	21.2 (24.7%↑)	12.6 (16.7%↑)	17 (2.1%↓)	7.1 (7.7%↓)	63.7 (-)

- 참고자료 : <http://www.morflot.ru/news/lenta/n3949.html>(검색일: 2019년 2월 7일)
<http://sudostroenie.info/analitika/111.html>(검색일: 2019년 2월 7일)
<http://www.morport.com/rus/news/gruzooborot-morskih-portov-russii-za-yanvar-dekabr-2018-g>(검색일: 2019년 2월 7일)

남가영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031-330-4852, neba95@naver.com



중부권역 주요 동향

■ 투르크메니스탄, 국가발전 위한 단계적 개혁 착수

- 지난 2월 1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w)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2019-2025 사회 경제 개발 프로그램(Programme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in 2019-2025)'을 승인함
 -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의 다각화와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들의 생활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가 번영을 꾀하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중 폐쇄적인 성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투르크메니스탄이 향후 수년에 걸쳐 현대화와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함
 - 당국은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했을 때 2019년 투르크메니스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6.3%로 내다보고 있으며, 사회 경제 개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25년에는 8.2%로 예측하고 있음
 - 한편 2025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 국내총생산 구조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33.8%, 농업은 8.9%, 건설업은 11.5%, 서비스 분야는 45.8%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 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주지하듯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 중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서부 카스피 해와 접해 있기 때문에 카프카스 국가들이나 터키, 유럽 지역 등으로의 해상 진출에도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풍부한 자원의 수출을 위한 물류 운송 기반시설의 확충이나 경제 특구 및 클러스터, 경제 회랑 건설 등과 같은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임

- 또한 천연자원 생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첨단 생산시설 확충에 약 2,092억마나트(TMT)가 할당되어, 기존보다 월등한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사회 경제 프로그램의 이행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프로그램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총 20개의 의료센터와 364개의 초중등학교, 15개의 문화센터, 24개의 상하수도 시설들을 확충하고, 특히 농촌지역 사회기반시설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처럼 향후 7년간 이어질 이번 프로그램은 투르크메니스탄이 현대화로 진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참고자료 : State News Agency of Turkmenistan (검색일: 2019년 2월 12일)

오상호 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 카자흐스탄, 다양한 수출 품목 확대 정책 추진

- 카자흐스탄 정부는 올해 수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Arystan Kabykenov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수출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크롬 제품, 극세사 섬유, 주철 제품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꼽힘
 -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이란, 중국 등 인근 국가뿐만 아니라 벨로루시, 터키, 영국 등 유럽까지도 수출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임
- 현재 카자흐스탄은 약 110개국에 800개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해마다 꾸준히 수출 품목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임
 -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수출 품목을 8~10가지 이상 늘려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제품의 생산량 또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 수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 수출 잠재력을 1.5배 이상 증가시킬 계획임
 - 수출 장려를 위한 대표 정책 중 하나로 약 130만달러 수준의 대출 및 보증 등 금융 지원책을 마련함
 - 또한 주요 수출대상국 내 무역사무소를 설립해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관광, 투자유치, 물류시장 확대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할 예정임
 - 신규 무역사무소는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및 우즈베키스탄 등 내 개설될 예정이며 향후 유라시아 지역 및 유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참고자료 : <https://astanatimes.com/2019/02/kazakhstan-to-expand-types-of-goods-exported/>(검색일: 2019년 2월 11일)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미국에 군사적 목적으로 카스피해 항만 시설 제공 반박 ... 철도 연결을 통한 물동량 확대 기대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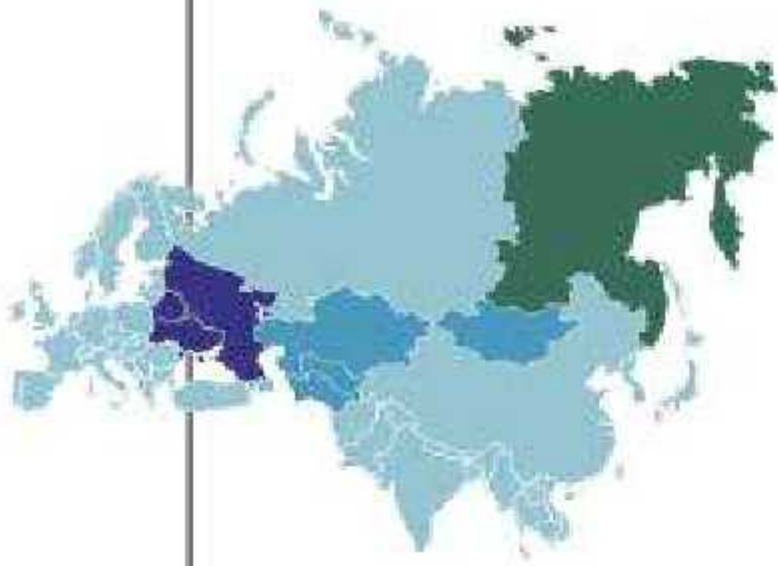
- 지난해 12월 말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군용 목적으로 카스피 해 항구 사용권 제공에 대해 반박함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체결된 카스피 해 연안 5개국(카자흐스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의 해역 영유권 조약을 놓고 “카스피 해는 이제 연안국들의 우정, 협력과 평화의 바다로 거듭났기 때문에 연안국 이외 제3국의 군사적 목적 사용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군에 항만시설 사용 허가 논의에 대해 일축했음
 - 하지만 카스피해가 과거 테러와의 전쟁에서 비전투용 물자 수송 루트로서 기능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군용 목적이 아닌 화물 운송에는 국부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덧붙임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약’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는 바다도, 호수도 아닌 “5개 연안국의 육상 영토에 둘러싸인 수역”으로 합의 - 카스피 해의 경계는 내수, 15마일의 영해, 이후 10마일의 어업수역과 공해로 구분 - 유전 및 가스전 지대는 국제법에 의거 연안국들의 합의에 따라 구분 - 해상통행, 어업, 학술연구, 광케이블 및 석유가스관 매설 원칙 규정 - 연안국 외 타국 해군 주둔 금지 - 연안국들은 지역안보, 대테러, 천연자원 관리 및 환경 문제 해결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자료: RIA Novosti, 2018

- 또한 대 중국발 물동량의 증가, 유럽, 중동과의 연계 측면에서 카스피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음
 - 카자흐스탄 경유 중국발 물동량은 2018년까지 18만톤, 2020년경에는 50만톤, 2021



년에는 2백만톤으로 증가할 것이며, 물류 통과만으로도 50억달러의 수익이 예상됨

중국 발 러시아, 중앙아시아 철도 노선도



자료: Russi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16

참고자료 : <http://time.kz>, 2018 (검색일: 2019년 2월 8일)

Russi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16 (검색일: 2019년 2월 10일)

RIA Novosti, 2018(검색일: 2019년 2월 10일)

조용성 현지리포트(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교)

+7 981-158-65-06, mirinae2929@gmail.com



주요 통계

2017/2018년 러시아 연방관구별 15~72세의 인력수 변동

(단위: 천 명)

연방관구	2017년					2018년				
	1~3월	3~5월	5~7월	7~9월	9~11월	1~3월	3~5월	5~7월	7~9월	9~11월
중앙 연방관구	21119.6	21119.0	21234.2	21350.7	21471.2	21259.5	21363.0	21338.7	21402.8	21337.9
북서 연방관구	7550.0	7556.3	7577.6	7590.0	7543.8	7488.0	7509.7	7513.7	7492.7	7495.5
남부 연방관구	8162.8	8111.5	8135.4	8244.5	8221.3	8161.5	8202.3	8162.9	8261.4	8205.6
북캅카스 연방관구	4537.2	4535.8	4554.6	4588.8	4588.2	4600.2	4609.7	4655.0	4676.7	4665.6
프리몰시스키 연방관구	15123.2	15198.9	15175.2	15319.2	15195.1	14937.2	14912.2	15029.2	15164.5	15157.5
우랄 연방관구	6377.7	6383.3	6376.0	6402.9	6397.8	6369.6	6400.2	6354.8	6376.9	6327.8
시베리아 연방관구	8593.9	8611.9	8650.5	8688.8	8664.2	8611.9	8588.8	8612.8	8656.6	8609.7
극동 연방관구	4291.7	4302.5	4310.1	4336.2	4340.0	4299.4	4301.5	4303.7	4324.9	4346.8
합계	75756.2	75819.2	76013.5	76521.1	76421.5	75727.4	75887.4	75970.9	76356.6	76146.4

자료: http://www.gks.ru/free_doc/new_site/population/trud/tab_trud1.htm(검색일: 2019년 2월 10일)

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KMI 러시아연구센터)

+7-914-345-3947, aquillar7@gmail.com